

좋은 삶으로의 초대*

최성욱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말해 보세요. 이제 말해 보세요. 당신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들에게 말해 보세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 첫 수업에서 들은 충고다. 글 쓰는 법을 배웠어도 같은 충고를 들었을 것이다. 좋은 삶에 대한 통찰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다. 여러 장에 걸쳐서 이 주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좋은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덕적 삶과 영성적 삶의 통합을 위해 앞장에서 제안한 핵심 주제들을 여기서 요약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삶은 동반할 동료가 있어야 가능한 덕을 추구하는 삶이다.

도덕적이고 영성적 삶의 통합을 다룬 여러 장을 요약하면서 “첫째가는 것을 첫 자리에 두라”는 현자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요한계 문헌은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한 첫째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1요한 4,10).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영성과 도덕성의 문제에 먼저 움직인 분은 하느님이시다. 영성의 대가들이 종종 언급하듯, 하느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갈망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삶 전체는 하느님의 은혜로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세상의 어떤 사랑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있지만, 하느님과 벗

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하느님 사랑에만 있다. 좋은 삶이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삶이고,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 즉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친교를 나누는 삶이다. 물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는 말은 유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친구와 우애를 나누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느님과 친교를 나눌 수 없다. 우리 쪽에서 하느님과 맺는 우정은 엇비슷하기는 해도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한 우정이다. 하느님과 우정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이고 영성적인 삶을 가능케 해주는 하느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느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보다 어찌면 거룩한 사람 혹은 성인이 된다는 말이 더 쉽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좋은 삶이 하느님과 벗이 되는 삶을 뜻하는 한, 도덕적 삶과 영성적 삶은 함께 다루어야 할 주제다. 도덕적 삶과 영성적 삶의 주제가 만나는 지점은 인간의 성품과 덕행이다. 책 전체를 통해서 미리 설정했던 명제는 이렇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외부의 조건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이 도전은 우리에게 형성된 습관,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믿음, 바라는 이상, 자기에 대한 이미지, 주변부에 대해 인지한 것을 드러내게 한다. 현안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고, 직면한 상황에 시의적절한 응답을 식별하는 일은 우리 성

품의 깊이와 고결한 습관에 달렸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지, 현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에 달렸다. 따라서 특별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동으로 선택한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결정은 이미 우리 내면에 마련되어 있다. 중요한 결정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 내려진다. 이는 본서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대신에,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원하는 성품과 덕행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까닭이다.

한 사람의 성품과 덕행이라는 주제에 집중하다 보면,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행위의 선택(예를 들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세금을 내고, 꽉 막힌 도로에서 인내하며 운전하는 등)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예를 들어 사랑스러운 사람 혹은 이기적인 사람, 친절할 사람 혹은 인색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혹은 불안한 사람, 공격적인 사람 혹은 방어적인 사람이 되는 것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덕의 윤리학이 전해준 핵심적 통찰 중 한 가지는 이렇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되고자 하는 유형의 사람(자신의 성품)에 영향을 준다. 또 역으로 우리 안에 형성된 성품은 행동 방식에 영향을 준다. 어떤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그 분야에 능숙한 사람이 된다. 부실한 행동을 반복하면 부실한 사람이 된다. 이는 운동선수의 훈련 원리와 비슷하다. 수영을 능숙하게 하면 능숙한 수영선수가 되지만, 수영 연습을 소홀하게 하면 부실한 수영선수가 된다.

특별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예측할 수 있다. 매일의 행동이 모여 한 사람의 성품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반복하는 행동이 우리의 사람됨에 영향을 준다. 난폭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면 난폭한 운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직장 동료들을 자주 멸시하는 태도로 대하면 거만하고 잘난체하는 습관이 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 사람 안에 형성된 사람됨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 중 무엇을 바라볼지에 영향을 주고, 특정한 응답 방식을 준비해 놓는다. 진실을 말하는 습관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한다. 구체적 상황에서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안목도 성장시킨다. 비겁한 행동만 일삼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용감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사일러스 마너(Silas Marner) 같은 구두쇠에게 후한 마음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 Macbeth는 불한당 같은 삶을 살면 불한당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 준다. 극 중 맥베스 부인이 손에 피가 묻었다고 상상하여 피를 씻어내려고 애쓰는 장면은 우리의 행동이 내면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 준다.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을 칼로 자르듯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덕을 행하려면 작은 일에서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에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한 이의 사람됨에 따라 현안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참담한 미래가 예견되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어도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주는 두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사람이 다르게 응답하는 이유는 현안을 해석하는 방식과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성품이 달랐기 때문이다. 아마도 한쪽 사람은 고통의 순간을 그저 의미 없는 사건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삶의 일부라고 해석하여, 하느님의 손길에 삶을 맡겨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할 것이다. 두 사람의 다른 해석은 두 사람이 지니고 살아가는 다른 성품을 반

영한다. 이들의 응답은 이들 각자가 지닌 도덕성과 영성이 각자 안에서 어떻게 함께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부터는 좋은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일상과 분리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좋은 삶이란 매일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과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좋은 삶을 추구한다는 말에는 이웃과 교제하면서 덕을 닦으며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좋은 삶이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기 위해 그분의 현존에 응답하는 삶이다. 제자 됨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에게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우리 안에 숨겨진 선을 향한 갈망을 함께 나눌 이가 없다면 우리는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없다. 좋은 삶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 성품과 덕을 갖추기 위해서, 그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안정되고 지속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친구들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는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할 때 가능해지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렵풋이나마 보여 줄 수 있는 곳이다. 함께 사는 삶을 통해 교회는 폭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 또 지구(환경)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돌봄과 연민, 친절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

요컨대, 좋은 삶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는 삶이 아니다. 좋은 삶에는 동반할 친구가 필요하다. 덕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모험이다.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친분이 없다면, 삶의 열정을 나누는 친구가 없다면,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온갖 도

움을 아끼지 않는 친구의 애정이 없다면, 우리는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없다. 우리에게 좋은 삶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획득한 결과라기보다, 친구들이 우리 안에서 최고의 모습을 만들어낸 덕분이다.

우정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정에 바탕을 둔 좋은 삶에 대한 이런 접근방식은 웬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우리 내면의 자리에서 움터 나온 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문화가 소위 우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흔히 감정적 필요와 지지의 욕구에 근거하고 있다. 우정이라 부르고 싶겠지만 사실은 피상적으로만 아는 관계를 뜻하거나 교묘하게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리킬 때가 많다. 더구나 사람보다 물건을 더 필요로 한다고 믿게 만드는 소비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우정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만다. 하지만 자동차 범퍼 스티커 문구가 알려 주듯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다.” 소비사회는 사랑의 풍성함이 아니라 경제적 부를 기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버린다. 친구를 사귄 때도 상품처럼 고르고, 사용하고, 제멋대로 폐기처분 해버린다.

이런 분위기의 배후에는 개인주의적 풍토가 있다. 한 사람의 자아를 사회적이고 관계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적·개별적·자립적·자기충족적 존재로 보는 풍토가 그것이다. 이런 문화 풍토는 우리가 독립적일수록 더욱 잘사는 것이라고 시사한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기보다는 빼앗는 사람으로 비친다. 그는 인생에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위협하는 존재에 가깝다. 극단적 형태의 개인주의는 인간이 우정을 맺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요건마저 파괴한다. 개인주의는 친구끼리 맺는 우정의 뜻이 서로에게 최상의 모습을 바라고, 그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존재는 좋은 삶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함께 공감할 동료이고, 우리와 더불어 좋은 삶을 찾는 데 헌신할 동료다. 좋은 삶이 우리 안에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꿈·이상·가치·염려·관심을 공감하며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특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의견에 동의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로버트 콜스 Robert Coles가 쓴 「어린이의 도덕적 지성」 The Moral Intelligence of Children은 아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 성품을 획득하는지 알려 준다. 콜스는 아이가 규칙을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서뿐 아니라 어른의 행동을 보면서 도덕적 지성을 얻는다고 말한다. “아이는 목격자이다. 아이만큼 도덕성의 성숙과 결핍을 세심하게 보고 있는 이도 없다.” 콜스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에게 필요한 성품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한다.

새파랗게 젊은 인턴 시절, 연세 지긋한 의사 선생님의 도덕적 지성을 직접 목격하던 때를 떠올려 본다. 그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존중할 줄 아는 분이셨다.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깨달은 분이셨다. 나는 선생님이 환자들과 아프고 병든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았다.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인턴이었던 우리, 레지던트, 간호사까지, 병원 잡역부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관리자, 병원이 원활하게 운영 되도록 애쓰는 모든 직원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았다. 그분이 애써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

선생님은 훈계하신 적이 없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병원 직원이 환자 아이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설교한 적이 없다. 물어보라고 논문을 주신 적도 없다. ... 사실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 적이 거의 없다.

도덕적 원칙으로 손수 사셨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그분의 행동과 이웃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다. 그 모습이 도전 되어 동화시키는 지점이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존경하고 믿음이 가는 연장자에게 배울 때, 비로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원리와 비슷하다. 따라 해 보고 싶었다.

콜스의 이야기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좋은 사람을 보고, 좋은 사람을 따라 해 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동생이 형에게 했던 말과 같다. “내가 크면 꼭 형처럼 되고 싶어. 부디 좋은 사람이 되어줘!”

한 사람이 사귄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친구들을 통해 배우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타인과 관계 맺는 데 대한 배움은 특별한 몇몇 친구와 맺는 우정의 범주를 넘어 영향을 미친다. 로버트 콜스가 멘토로 삼았던 의사 선생님을 보고 배웠듯, 좋은 동료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으로도 배우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진심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해, 몇몇 친구와 나누었던 우정은 많은 이들과 우정을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하느님의 친구가 되고 그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일련의 덕행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 이 책은 그중 몇 가지 덕목을 살펴봤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콘으로써 인간은 거룩한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다. 거룩한 존재라는 측면에서 인간은 자신의 성취와 무관하게 존엄하다. 우리의 존엄성은 하느님께 거저 받은 선물이지만, 우리에게는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

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변형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거저 받은 선물을 내어줌으로써 좋은 삶을 이룬다.

검손은 받은 은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헌신적으로 실천에 옮기겠다고 약속한 사람의 덕목이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공평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형제·자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힘을 보탬 수 있다.

감사는 모든 선물은 쌓아놓고 자랑하기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선물임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의 덕목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아깝게 놓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도달한 우리의 모습이 동료의 돌봄과 도움의 손길 덕분임을 알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우리가 애초부터 하느님 사랑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음을 수용하는 사람의 덕목이다. 자존감이 있어야 좋은 삶이 가능하다. 이는 동료와 우정을 맺는데 필요한 자존감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즐거워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는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덕목이다.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지구 환경과도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다. 평소에 잊고 지내기 쉬운 사람들, 특히 길 잃은 이와 가장 작은 이, 낮은 자리에 앉은 이에게 다가서는 사람의 덕목이다.

연대성은 이웃과 함께 살고 서로를 위해 일하는 사람, 지구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의 덕목이다. 연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과 동일한 인간성을 발견하기에 이웃을 동반자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들은 계획이나 과업이 가장 궁핍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서 판단한다. 연대하는 사람은 정

의와 사랑,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려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한다.

신뢰와 신뢰는 친구로 함께 살아가게 해주는 덕목이고, 오래 지속되는 친교의 끈을 형성하게 해주는 덕목이다. 신뢰와 신뢰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웃의 좋은 삶을 위해서 위협을 감수할 줄 안다. 이들은 이웃을 자기 위협의 존재로 보는 대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희망은 불협화음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덕목이다.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이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판명 난 일도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산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의 은혜 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용서는 구체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덕목이다. 우리 삶에 복수와 폭력이 없어도 함께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덕목이다.

환대는 모든 덕목을 표현하는 사랑의 덕이다. 환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실천하는 덕이고, 이웃을 받아들이는 환영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실천하는 덕이다. 이 환영의 자리는 새로운 친교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자신이 받은 선물로 모든 이를 섬기겠다고 자처한 사람들이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의 밑그림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그런데 이런 덕목들을 실천하여 좋은 사람이 되려면 친구가 있어야 한다. 동반해줄 친구가 없다면 도덕적 유아기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영적으로도 공허한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도덕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성적으로도 풍성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떤 친구가 있어야 할까? 좋은 삶에 대한 전

망을 담은 이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하느님께 좋은 친구가 되는데 필요한 몇 가지 태도를 정리해 보자.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와 평화,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살라고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실에 집중하도록 자극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진정한 자기 모습에 도달하도록 자극하는 친구,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친구, 거짓 자아에 속아 가식적으로 살지 않도록 자극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로버트 프로스트 Robert Frost의 첫 번째 시집에 실린 “계시(Revelation)”라는 짧은 시는 이렇게 끝맺는다.

그러나, 그래서 모든 이들과 함께,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멀리서 하느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무 잘 숨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말해야 한다.

자신의 진실을 숨긴 채, “너무 잘 숨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현주소를 알려 줄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친구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고, 다음과 같이 반문하게 한다.

“지금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는 자극해줄 친구도 필요하지만 격려해줄 친구도 필요하다. 친구들이 전하는 미친 사랑과 격려는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어 우리가 최상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돕는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은사가 드러나도록 위험한 순간도 감수하게 한다. 이들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감 때문에 침울해지려 할 때 우리를 격려하려고 기다린다. 또 이들은 우리에게 상처와 실망의 순간이 닥쳐와도, 우리가 입은 상처보다 받는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마음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때로는 온

몸으로 껴안아 준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반추하는 거울이 되고,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과 한계를 수용하는 쪽으로 마음을 다잡게 된다. 이들은 우리 잘못을 잡아내는 감시자가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전체 모습을 수용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다.

인생에는 나를 웃게 하는 친구도 필요하다. 유머 감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전망을 유지하고, 우리의 태도를 치유하고, 건강한 균형감각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인생에 빠져있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유머를 통하고 나면 이해하고, 감사드리고, 심지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 인생에는 슬프고, 비참하고, 침울한 순간이 참 많다. 이러한 인생의 무게를 상쇄해 줄 만큼 우리는 충분히 웃고 있는가? 좋은 친구는 우리를 웃게 한다. 우선 스스로를 보면서 웃게 한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웃을 때, 그것이 마치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여기게 해준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웃기는 쉽다.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웃을 수 있으려면 특별한 선물(친구)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웃는 체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마치 고향 집에 돌아온 것처럼 상처 입기 쉬운 자기 속살마저 편하게 느끼게 한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빨리 자신에 대해 편안해지는지 느끼게 된다. 이들의 웃는 관점은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도 함께 웃게 만든다. 자유와 편안함, 치유의 시간인 것이다. 우리의 인간성 내면에서 진솔한 자신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격려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다. 그러나 하느님의 빛이 되고 서로 우애를 나누는 풍성한 삶으로 모든 이를 초대하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